■ 코로나19 여파 사회복지시설 1131곳 임시휴관·프로그램 휴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더 힘들다

제주도 "7437명 투입된 민관합동대책반 가동 계획"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제주 사회복지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1131개소로, 오는 3월 8일까지 임시 휴관하거나 모든 프로그램을 휴강하기로 했다. 1131개소 가운데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520개소로 전체 시설의 4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신청도 당초 3월 2일에서 3월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됐다. 다만 장기간 신청대기 노인, 사각지대 우려 등을 고려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할 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돌봄 수행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돌봄대상자 6469명에 대해서는 어르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직·간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칫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정보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와 행정시, 읍·면·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 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74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을 가동, 취약계층 감염증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발생지점에서 진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까지 동선을 최소화하는 '원스톱 대응 프로세스'를 실시한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기타 재가 취약계층 등 3가지 유형으로 관리 대상을 분류해 집중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공백 시설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 전면금지 ▷종사자 외부 출장·교육·여행 전면 금지 ▷거주 실별 급식 배식 ▷집단급식시 개인용 식기 사용 ▷촉탁의 검의 ▷실시간 검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만약 거주시설 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자가격리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43명으로 수정했다. 이는 170명 가운데 27명이 도외 주소지를 둔 자가격리자이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관리는 제주도가 그대로 실시한다. 송은범기자

지난해 하루 12명꼴 태어났다

제주 신생아 총 4509명… 1년새 5.7% 감소

합계출산율 1.14명 세종·전남 이어 2위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년 전에 견줘 2명이나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1.14명으로 전국평균(0.92명)보다 높아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는 4509명으로 전년도의 4781명보다 272명(5.7%) 적다. 2017년 5037명에 견줘서는 528명이나 줄었다. 최근 2년 단위로 신생아 수가 1000명 가량 줄고 있다.

지난해 조출생률은 6.4%(인구 1000명당 6.4명)로 전국평균 4.8%보다 높고 세종(9.5%)에 이어 전국 2위다.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세종(1.47명)과 전남(1.23명)에 이어 3위다.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3948명으로 신생아 수에 비하면 561명밖에 차이가 없다. 이 격차는 매년 줄면서 조만간 역전현상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따른 조사망률은 5.9%(전국평균 5.7%)를 보였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조사망률이 전국평균을 앞섰다.

지난해 제주지역 혼인 건수는 3358건으로 전년도의 3638건보다 280건(7.3%) 줄었다. 조혼인률은 지난해 5.1%(전국평균 5.0%)로 전년도 5.5%에 비해 낮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716건으로 2018년 1607건에 견줘 109건(6.8%) 많다. 조이혼률은 2.6%로 전국평균(2.2%)을 상회했다. 백금탁기자

한차례 연기된 개학, 또 연기된다면?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학사일정 운영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차례 개학을 연기한 데 이어 또 다시 개학이 미뤄질 가능성을 두고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학교 휴업을 1~3단계로 나눴다.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휴업 기간이 15일 이내일 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다. 개학이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된 현재가 이 단계에 포함된다. 휴업이 16~34일 가량 이어지는 '2단계 휴업'부터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이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다. 35일 이상 휴업하게 되는 '3단계 휴업'에선 휴업 장기화 대책이 새로 세워진다.

휴업 단계별로 학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휴업 1단계에서 제주지역 학생들은 EBS 방송에 더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제주e학습터를 통해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다. 휴업 2단계에선 학습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운영 시간이 누적·관리되고, 교과별 예습 자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휴업·휴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28일~2월 3일 일찌감치 개학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 모두가 봄방학과 연계해 이달 25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도 적게는 3월 1일, 길게는 3월 31일까지 휴관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봄이 왔어요~"… 꽃망울 터트린 목련 26일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에 봄소식을 알리는 목련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중국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194실 가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합동 임시생활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학별 시설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 임시생활시설은 현재 194실에 이른다. 3월까지 이어질 중국 유학생들의 입도 일정에 맞춰 대학별로 배정될 예정인데 제주국제대 5명 입실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5일 제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도내 대학 관계자와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입도하거나 입도할 예정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개강을 앞두고 입도하는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규정이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대응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행동에 옮겨야 하고, 치밀하고 면밀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주대 측은 "중국 유학생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학교 명의로 재학생 전원에 대해 외출자제, 위생준수, 발열자 신고와 상담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신천지 교인 명단과 관련해 대학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 "신천지 제주 신도 14일동안 관리"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신천지교회 제주 신도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약 2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신도 전체 명단을 확보함에 따라 26일 중으로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명단이 확보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까지를 '최대 잠복기'로 설정, 매일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이 기간 대상자가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각 선별진료소로 이송하는 조치가 취해지며,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적극 추적·관리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 성 조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장

오 정 안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및 서귀포시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오태곤 외 동문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성산일출봉농협 상임이사

김 영 종
(풍천초등학교 23회)
성산일출봉농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풍천초등학교총동문회
회 장 김 호 중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성산일출봉농협 상임이사

김 영 종
성산일출봉농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표선중학교 제25회 동창회
고권찬 회장 외 회원일동